

목차

신앙고백

1.0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14
살아 계신 하나님
성서
구약
신약
하나님의 의지
창조
섭리
하나님의 율법

2.0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다 16
인간의 자유
자유의지의 남용

3.0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과 화해하신다. 16
하나님의 계약
구세주 그리스도

i

4.0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17
성령님의 부르심과 사역
회개와 고백
구원받는 믿음
칭의(Justification)
중생과 양자 됨(Regeneration and Adoption)
성화와 은혜 속의 성장(Sanctification and Growth in Grace)
믿는 자들의 보전(Preservation of Believers)
그리스도인의 보장(Christian Assurance)

5.0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 19
교회
성도의 교제(Christian Communion)
예배(Christian Worship)
성례전(Sacraments)
세례(Baptism)
주의 만찬(The Lord's Supper)
선교속의 교회(The Church in Mission)
교회의 정치형태(Church Government)
교회의 치리(Church Judicatories)

6.0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증언한다. 21
그리스도인의 자유(Christian Freedom)
선행(Good Works)
칭기지 직분(Christian Stewardship)

결혼과 가족(Marriage and the Family)
주일(The Lord's Day)
법적인 맹세와 서약(Lawful Oaths and Vows)
시민정부(Civil Government)

7.00 하나님은 모든 삶과 역사를 완성하신다. 24
사망과 부활(Death and Resurrection)
심판과 완성(Judgment and Consummation)

신앙고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심이라.”(요한복음 3:16)

1.0 하나님은 인간(The Human Family)에게 말씀하신다

살아 계신 하나님

- 1.01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되시는 단 한 분이신 참 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사랑이시며, 영원 불변하시고, 지혜로우시며, 권위가 있고,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선하시고 진리이다.
- 1.02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되시고 유일하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은 성서와 자연과 역사적 사건과 사도와 전도자들과 목사와 교사들을 통하여, 그러나 특별히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 1.03 하나님은 말씀과 역사 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계약의 관계로 초청하신다. 하나님은 계약에 충실할 것은 약속하셨고, 믿는 모든 이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초청에 신뢰와 믿음으로 응답한 모든 이들에게 약속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즉 계약공동체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신다.

성서 The Holy Scriptures

- 1.04 창조와 섭리와 심판과 구속의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은 신구약 성서 말씀안에 나타난 공동체를 통해 증거되었다.
- 1.05 하나님은 성서를 쓴 계약공동체의 사람들을 감화시키셨다. 성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와 원죄와 심판과 구원과 교회와 신자의 성장 등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성서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권위 있는 안내자이며, 믿음과 훈련을 위한 절대적인 규범이 된다.
- 1.06 성서를 통하여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사렛 예수의 탄생과 일생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의 견지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성서의 권위는 그것이 담고 있는 진리와 하나님의 음성에 기반되어 있다.
- 1.07 성서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교화를 소유해야 한다. 더 나아가 역사적 자리에서의 성서가 쓰여진 것을 연구하고 성서와 성서의 비교를 통하여 수세기동안 거처온 교회의 증언을 듣고, 계약공동체내에서 다른 이들과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테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훬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의지(Will)

- 1.08 인간과 그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전적으로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다. 성서 그리고 자연과 역사의 사건들을 통하여 드러남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극명하게 아려졌고, 예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 1.09 하나님의 의지는 예배, 사랑 그리고 봉사안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나타났지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방법의 신비는 놀람과 외경으로 남아있다.

창조

- 1.10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 또는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지혜와 아름다움과 선함과 사랑을 보여준다.
- 1.11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여자와 남자는 동등하며 서로 돕는 자로 창조되었다. 하나님 형상의 드러남(반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다.
- 1.12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원과 질서는 모든 인간이 함께 다스리며 보존하고 즐기며,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케 하려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런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섭리

- 1.13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민족과 나라와 모든 사물에 섭리적인 돌봄을 행하신다. 이러한 섭리의 방식은 성서를 드러나있다.
- 1.14 하나님은 일상적으로 자연과 역사적 사건과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법과 성서를 통해 섭리를 행하신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과 함께,그들 에게 행하실 자유가 아직 남아 있다.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에 열려진 채로 남아 있다.
- 1.15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목적은,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다.
- 1.16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거나 저버리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의 사랑을 확인함으로서 이 진리를 알게된다. 이는 죄에 따르는 심판과 그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 불신자들 또한, 그들이 거부하거나 무시할찌라도, 결국은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그들을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유도하시도록 계획되어졌다.
- 1.17 하나님의 섭리는 온 세상을 다 포함하시지만, 특히 교회, 계약공동체의 창조안에서 더욱 명백하다. 하나님은 기다린(patient)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와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증인되는 사명과 봉사를 감당하게 하신다.
- 1.18 하나님의 섭리는 충분히 알려졌고 경험되었지만, 동시에 신적 신비를 동반하기도 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질병과 고통, 슬픔, 비극, 사회적인 격변, 자연 재난을 당한 사람일 찌라도, 하나님의 임재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The Law of God)

- 1.19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인간 관계를 다스리기 위해 도덕법을 주셨다. 이 도덕적 규범은 우주 만상을 구성하고, 모든 인간을 구속하는 공의의 원리가 된다.
- 1.20 도덕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는 성서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공의의 원리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역사하심 전체로 설명되어지지 않는다. 도덕법에서 이마 드러난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구속적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
- 1.21 도덕법은 복음서에 충분히 나타나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행위를 보여주어야 하 것이며, 이는 사랑과 정의가 함께한다.
- 1.22 도덕법의 목적은 인간 생활에서 영적, 지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건강함과 완전함을 창조하는데 있다. 전일성(Wholeness)의 성취하기위해 사용되는 모든 측면에서의 삶의 존엄을 창조하는 인간 개인성의 힘이 도덕법의 취지이다.

2.00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다. The Human Family Breaks relationship with God.

인간의 자유(Human Freedom)

- 2.01 사람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서 복종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부여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자유로이 응답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 2.02 하나님께서 이러한 본성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향한 선택과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이지의 남용(The Abuse of Freedom)

- 2.03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의 첫 조상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공동체를 파괴하였다. 그리하여 인간은 모든 면에서 죄로 향하여 마음이 기울어졌다.
- 2.04 아담과 이브가 그러하였듯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반항하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잃게 되었고,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었다. 이 상태가 모든 죄와 행위와 태도의 기반이 되었다.
- 2.05 스스로 죄지음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앞에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됨 없이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
- 2.06 하나님으로부터의 인간의 소외는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구속의 필요성 앞에 놓여졌다.

3.00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과 화해하신다

하나님의 계약

- 3.01 하나님은 죄로 인한 깨어짐과 소외를 치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화해를 통하여 인간과의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역사하신다.
- 3.02 하나님께서는 죄된 인간을 가족의 공동체의 본질을 지니는 계약관계로 회복시키려 역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행과 인간의 믿음의 응답으로 세워진다.
- 3.03 하나님의 계약은 은혜의 관계이다. 이는 성서안에서의 많은 양상과 형태로 나타나고 이들은 한결같이 은혜의 계약으로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계약은 가장 궁극적이고 최고도의 은혜의 표현이다.
- 3.04 영원한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언약의 본질이다. 예수의 오심 이전에는 이것은 약속과 선지자와 희생제사와 할례와 유월절 어린양과 기름부음 받은 자들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되었다. 이러한 의식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알게 그들을 이끌었다.
- 3.05 예수 오심 이후로는 은혜의 계약은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전의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들 속에서 예배의 다른 행동들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함께 은혜의 계약의 복음은 단순하지만 영적인 힘으로 드러난다.
- 3.06 어린이는 은혜의 계약안에 언제나 부모와 함께 포함되어 왔다. 예수 오시기 이전(BC)에는 적절한 표징과 표적으로 할례를 실시하였으나, 그 이후(AD)에는 표식과 증표는 세례이다.

구세주 그리스도(Christ the Savior)

- 3.07 화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는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완성되었다.
- 3.08 진실로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들처럼 유혹을 받으셨지만 결코 범죄하지 않으셨다. 인간 삶의 모든 것을 공유하셨지만,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무죄하시며 신성을 더럽히지 않았고, 세상의 구원자로서 처음부터 온당하였고, 죄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의 유일한 희망이다

- 3.09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죄와 사망의 고통을 기꺼이 당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지 삼일만에 죽음에서 일어나시며 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 보이셨으며, 하나님께 오르사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intersession)가 되었다.
- 3.10 성령을 통하여 인간들은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며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따르게 된다. 신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합당하도록 마귀의 힘을 물리치도록 돕는다.
- 3.11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일어난다. 아직 그 능력과 효력은 태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는 자 모두에게 확장되고 있다. 성령에 의해 하나님이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여러 도구들을 통해 전달되어 진다.

4.00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성령님의 부르심과 사역

- 4.01 하나님은 세상의 죄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구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안에서 모든 인간에게 회개와 믿음의 의 부르심으로 갖게 하시기 위한 역사하심을 지속한다.
- 4.02 성령은 성서과 성례전과 공동체의 예배와, 말씀과 행위안에서 신자의 증언과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법을 통하여 일하신다. 성령은 죄인들의 마음을 감화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와 구원의 필요성을 확신케하며 그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도하신다.
- 4.03 성령의 부르심과 역사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인간의 어떤 공로에 대한 응답이 아니다. 성령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모든 죄인의 모든 소망과 목적과 의도에 선행된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모든 사람은 성령님의 교화하는영향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 4.04 인간은 성령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저항할 수도 있지만, 회개로서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모든 이들에게는 구원과 삶이 있다 .

회개와 고백

- 4.05 회개는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버릴것을 확실히 결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는 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다.
- 4.06 인간들은 회개나 또는 다른 어떤 인간적인 공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회개는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시는 은혜에 참여케 하는데 꼭 필요하다.
- 4.07 관계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난 자기의 죄에 대한 솔직한고백과 그들이 할수 있는한 과거를 개선해야 한다.

구원받는 믿음

- 4.08 구원받는 믿음은 성령에 의해 유발되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이다. 그런 믿음은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와 죄에 대한 통회,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봉사의 결단을 포함한다.
- 4.09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며, 믿음이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한 선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과 화해 받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응답을 요구하신다.
- 4.10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하는 믿음이 생기는 때에 그들은 죄의 용서받음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 4.11 믿음 생활중에서 신자들은 많은 고통과 갈등을 거치게 되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최후 승리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보장되어 있다. 성서와 계약의 경험을 통하여 사람은 수세기동안 이 약속의 증언한다.

칭의(Justification)

- 4.12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한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이다. 그들이 회개와 그들의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화를 주신다.
- 4.13 이 관계안에서 하나님은 죄사함을 계속하신다. 신자들이 때때로죄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무너뜨릴지라도 그들이 아직도 받아들여지고 그 관계를 지속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것임을 확인시켜 주신다 .
- 4.1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죄의 본질을 알고 있다. 그들은 죄거의 자신의 죄성(Slaves)과 새로운 자신 사이에서 선과 악 사이에서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리고 삶과 죽음사이에서의 갈등이 자신들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안다.

중생과 양자 됨(Regeneration and Adoption)

- 4.15 중생은 믿는 자의 새롭게 하심을 말하며, 하나님의 은총으로써만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리스도안에서 다시 태어남이며, 영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안에서 새사람으로 지음받음이다.
- 4.16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고, 그들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지도 사랑할 수도 없으므로 필요한 것이다.
- 4.17 중생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이시고 그들을 회개시키는 성령을 통하여 완성되고, 믿음의 빛안에서 하나님을 믿게하고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주어진 구원하시는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인다.
- 4.18 성령의 감화로 힘을 받을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하고 또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된다.
- 4.19 아가때 일찍 죽은 자나 생전에 그리스도께 응답할수 없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되고 구원받는다.
- 4.20 양자되심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난모든이들을 계약의 가족(covenant family)를 받아들여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양자됨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가족의 구속을 입은 모든 이들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성화와 은혜 속의 성장(Sanctification and Growth in Grace)

- 4.21 성화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주의 종으로 구별짓는 것이다.
- 4.22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에 계속적으로 참여함으로 계약 공동체에서 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아는 지식과 은혜안에서 성장한다. 신자는 인생에서 완전히 죄없음을 성취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사역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차로 닮아갈 수 있고 성령의 선물인 믿음과 사랑의 소망을 키워간다.
- 4.23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힘과 인식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의 죄와의 투쟁은 계속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봉사와 사랑과 섬김은 때때로 미움과 이기주의, 불신으로 타협되기도 한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으로 변하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께 의존하게 한다.

믿는 자들의 보전(Preservation of Believers)

- 4.24 믿는 자들의 변화는 중생을 통하여 시작되며, 의인으로 완성된다. 신자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지라도 계약관계는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보장하신다.

- 4.25 신자의 보전은 은혜의 계약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변호와 중재하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 4.26 유혹과 태만함으로 인하여 신자도 죄에 빠지기도 하며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은혜와 평안으로 멀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들의 죄를 완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성화 되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히 쉴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의 보장(Christian Assurance)

- 4.27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을 행하고, 그 안에서 살며 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는 자들은 구원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소망의 기쁨을 갖게 된다.
- 4.28 이 확실한 보장은 신적 약속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된 평화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믿는 그들의 영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증언에 바탕한다.
- 4.29 이 보장은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버리시거나 떠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보장함으로써, 신자가 믿음으로 예배와 성례전, 전도, 선교, 계약공동체의 삶에 참가함으로써 증가한다.

5.00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

- 5.01 교회는 유일하고 거룩하며 사도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시다.
- 5.02 머리되시고 주인되시는 그리스도가 한 분이듯이 교회는 하나이다. 그 하나인 교회는 조직이나 교리나 언약의 표현이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성례와 말씀이 하나임을 의미한다.
- 5.03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를 향한 증인으로써 교회를 따로 구별하시고 이미 이루어졌고 또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위에 기초를 두었으므로 교회는 거룩하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구원사역을 위하여 성화시킴에 기인하는 것이지 교인들 개인적인 거룩함에 있는 것은 아니다.
- 5.04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사역이 어떤 장소나 시간에 제한되지 않은 것처럼 만민의 것이다. 교회의 이러한 본성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킨 전 인류를 향한 성령님의 행위, 성령의 보편적 행위에 그 바탕을 둔다. 이것은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교회의 지상명령에 잘 나타나 있다.
- 5.05 하나님께서 처음 사도들에게 맡기신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교회를 창시하셨으므로 교회는 사도들의 교회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들의 복음 위에 세워지며,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이 복음을 충성으로 전파한다.
- 5.06 교회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언약집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고 반응하는 모든 사람, 과거와 현재, 미래, 연령을 초월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로 복음에 반응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5.07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함께 공식적인 언약 안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믿는 자들의 자녀 또한 이 언약집단에 포함되는데 아이들은 부모나 보호자 그리고 교회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아래 놓이게 된다.
- 5.08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힘과 지식이 불완전한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구속될 때까지 열심히 기다려야 한다.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세상 교회를 통하여 예배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성령을 통하여 교회의 성장과 교회생활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 5.09 이 세상의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와 사명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인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말씀과 성례를 주신다.

성도의 교제(Christian Communion)

- 5.10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서로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었다. 이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의 짐을 같이 지며 다른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다.
- 5.11 믿는 자들의 연합은 같은 조직체를 형성한 구성원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특정한 집단을 초월해서도 모든 믿는 자들은 언약집단을 형성하고 역사적인 유산과 유사한 신념을 신봉하는 다른 조직체와도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

예배(Christian Worship)

- 5.12 기독교의 예배의식은 하나님의 권세를 기리고 하나님 임재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하심의 축제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은 신자들의 응답이며 교회생활의 중심이다.
- 5.13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안에서 사랑, 용서, 인도하심과 구속하심을 보장하며, 신자는 하나님께 찬양과 고백, 감사, 사랑, 헌신, 봉사로 응답한다.
- 5.14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축하하며, 성서를 봉독하며, 기도, 찬양, 하나님께로의 헌신을 포함한다. 이러한 교회의 일반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 임재하심을 축하하는 다른 예배도 같이 예배하며 지속한다.
- 5.15 하나님께 합동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다. 합동예배는 교회내의 소그룹이나, 신자들이 많이 참석하는 모임을 통해 신자들을 모이게 함으로 실현된다. 묵상, 기도, 성서연구를 통한 사적인 예배는 개인적으로나 가족에 의한 집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성례전(Sacraments)

- 5.16 성례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대한 증거와 증표이다. 할례와 유월절은 구약시대의 성례식이며, 세례와 주의 만찬은 신약에서의 성례식이다. 이러한 의식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유효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 5.17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성만찬과 세례를 제정하셨다. 이러한 의식은 일반 예배의 부분으로 시행되고 교회의 절차의 권위하에 정당히 안수받은 목사에 의해 위탁되었다.

세례(Baptism)

- 5.18 세례는 성령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며, 믿음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계약의 영원한 표식이다. 이 성례전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새로이 변화시키며, 섬김을 위한 그들을 구별하신다.
- 5.19 유아세례의식은 부모나 보호자 중 한분이라도 믿어, 하나님의 언약의 책임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모든 믿는 자에게 행하여진다.
- 5.20 이 성례전에서는 물이 그 주요 요소로 사용되어 왔다.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 5.21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 행해지는 세례의식은 성령의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세례의식의 정당성은 그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 5.22 모든 믿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고 그에 따른 은전을 입은 것은 특권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례의식 자체가 구원에 없어서는 안될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교회와 기독교으로써의 생활에서 떠나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주의 만찬(The Lord's Supper)

- 5.23 주의 만찬(성만찬)은 그리스도가 배신당해 잡히시던 날 밤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교회가 살아계신 주의 계속되는 임재와 그의 재림에의 기대를 기념하는 영원한 방법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리고 기억하는 수단이다. 나아가 이 의식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오늘도 살아 계속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의미를 가진다.

- 5.24 이 의식은 빵과 포도즙가 사용되며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 이 의식에 쓰이는 빵과 포도즙 자체가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의식 자체가 구세주의 사랑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니 만큼 자신의 재점검, 숭배, 겸손,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없이 이 빵과 잔을 받아서는 안 된다.
- 5.25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께의 위대한 순종의 행위와 그것을 기념하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의 사역과 섬김에의 헌신의 영적인 양식과 성장의 수단이다.
- 5.26 계약공동체에 속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사람은 초대되고 이 예식을 받아들일 것을 격려받는다.
- 5.27 각각의 교회 회중은 이 성찬식을 정기적으로 행하여 기념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찬식에 자주 참여해야 한다.

선교 속의 교회(The Church in Mission)

- 5.28 예배와 말씀연구와 선포, 성례전의 기념에 의해 양육되고 유지되는 교회는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도록 명령을 받았다.
- 5.29 교회생활에서 성장은 아주 자연스런 현상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은혜의 방법으로 그들을 양육시키기 위한 존재로 불리워진다.
- 5.30 사도적 사명을 전수함에 있어서 계약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지 못하는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 왔고 또 계속적으로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존중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함께 나눌 책임이 있다.
- 5.31 계약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를 증거할 책임을 갖는다.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증언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권한이 아니다.

교회의 정치형태(Church Government)

- 5.32 교회의 머리되시고 주인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약공동체의 삶과 선교를 인도할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교회의 처리를 위탁하셨다.
- 5.33 이러한 직분자들은 교회를 섬기고 점검하고, 교회의 성만찬으로 교인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보살피고, 믿음 안에서 그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며 사랑으로 훈련시키고 교회법과 복음을 위법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책임이 있다.

교회의 처리(Church Judicatories)

- 5.34 컴벌랜드 장로교회와 미국 컴벌랜드 장로교회는 명확한 대의기관;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에 의하여 처리된다. 이러한 기관들은 입법, 사법, 집행의 특정 분야에 대하여 책임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선교와 상호 의존의 인정 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5.35 각 기관들의 의무로서, 교회 헌법과 일치화시키고 믿음의 문제들을 결정하고 훈육하고 다스리며 예배와 증언의 형태를 제안하며 훈련을 시키며 그들 앞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

6.00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증언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Christian Freedom)

- 6.0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의 수치와 죄의 세력과 죄책에서 인간을 자유하게 하셨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 바탕에 둔 이 자유는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대로의 인간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전하게 하고 그들의 일상의 소명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신다.

- 6.02 양심과 신앙과 예배의 주인되시는 단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계명과 견해로부터 믿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지도하고 징계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 6.03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구실로 죄를 범한다면 신자는 그리스도인 자유의 목적과 본질을 따라한다. 신자의 자유는 악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이다.
- 6.04 그리스도인의 자유 하에서 공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법적인 권위와 정의의 적절한 실행을 거부하는 신자는 교회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 6.05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궁극적인 충성을 바칠 의무가 있으며, 어떤 정부나 나라에 그 충성을 양보할 수 없을뿐더러 어떤 형태의 불의에도 그리스도인 양심으로 항거해야 한다.

선행(Good Works)

- 6.06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하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 받는다.
- 6.07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감사의 응답으로 행해진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모든 약점과 불완전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일을 자비롭게 받으신다.
- 6.08 선행은 구원의 결과이지 수단이 아니다.
- 6.09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신 자비와 섬김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관계 안에 기독교적 가치와 원리를 반영하는 윤리적, 도덕적 선택이다.

청지기 직분(Christian Stewardship)

- 6.10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은 모든 피조물과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되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봉사에 쓰여져야 함을 알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기술과 에너지의 창조적인 사용뿐 아니라 천연자원의 책임 있는 사용과 보전을 포함한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은 모든 이가 공유해야 하며 특별히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
- 6.11 청지기 직분의 동기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선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다.
- 6.12 하나님은 인간에게 각 사람이 가지는 책임들을 포함한 여러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모든 것들을 풍요하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선물들이 성숙한 나눔 안에서 사용되기를 원한다.
- 6.13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맡겨주신 일정하고 정기적인 드림은 헌신의 행위이며, 은혜의 수단이다. 교회에 그리고 교회를 통해 드리는 일은 모든 신자의 특권이다. 성서에서 드림의 지침이 되는 십일조는 신앙의 체험이며 풍요로운 보상의 훈련이다. 십일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나눔의 은혜도 경험하게 된다.
- 6.14 모든 신자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청지기 직분의 책임이 있다.

결혼과 가족(Marriage and the Family)

- 6.15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사랑, 동지애, 부양, 보호, 훈계, 격려와 다른 많은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기초적 집단으로 가족을 창조하셨다. 아이들이 태어남으로써 만들어지는 정상적인 관계이다.
- 6.16 교회는 환경으로 인하여 혹은 자원해서 독신된 자들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가정을 바로 인식하고 목회해야 한다. 교회는 각 개인과 집단을 계약공동체와 가족의 삶 안으로 포용해야 한다.
- 6.17 결혼은 남녀 자신들과 자녀들 그리고 사회의 성숙한 이익을 위한 남녀간의 관계이다. 결혼은 적절한 시민법에 복종되기도 하지만 원초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의 계약관계이다. 그러므로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것은 가장 잘 알려진 사랑과 신뢰의 인간관계이다.
- 6.18 하나님 하에서의 계약관계로서 결혼은 평생동안 지켜야 할 서약이며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 6.19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남과 여의 계약관계이므로 한 명 이상의 살아있는 결혼 상대자를 취하는 일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 6.20 인간의 죄성과 약함이 결혼관계를 위협할 때, 계약공동체는 그 결혼의 신성함을 지속시키고 각 배우자에게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다.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게 되면 계약공동체는 아이들을 포함한 이혼 피해자들을 목양하고 재혼을 생각하는 이혼자들을 상담할 책임이 있다.
- 6.21 교회는 결혼과 양육과 하나님의 주되심 하에서의 가족생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킬 책임이 있다.
- 6.22 교회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부주의로 인한 사고나 죽음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필요를 목양할 의무가 있다.

주일(The Lord's Day)

- 6.23 창조주는 그의 본성과 행위에 대한 특별한 성찰을 위해 칠일 중 하루를 주셨다. 창세부터 부활까지는 안식일로 알려진 일곱 번째 날이 주일이었다. 부활의 결과로서 기독교인들은 일주일 중 첫 날을 주일로 지킨다.
- 6.24 주일에 적합한 행위로는 예배, 성서연구, 선행, 새로워지기 위한 다음 행동들이다. 주일을 바로 지키는 것은 남은 날들을 위한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한다.

법적인 맹세와 서약(Lawful Oaths and Vows)

- 6.25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수행하기에 적절한 선하고 의로운 약속들에 대한 맹세와 서약으로 스스로들을 강제해야 한다.
- 6.26 서원(Vow)은 맹세와 비슷하지만 그것을 할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하며, 신실함으로 행해져야 하며, 온전함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서에 일치하는 것에 한해서만 서원되어야 한다.

시민정부(Civil Government)

- 6.27 시민정부의 목적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정의와 질서(Order)의 원칙 하에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복리(Welfare)를 신실하게 보존함으로써 시민정부는 인간들이 평화와 조화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의 기능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 놓여있다.
- 6.28 교인들은 투표권의 행사로 국민의 참여를 요구하는 국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으로써 지켜야 할 의무이다. 정의, 평화와 공공복지를 위한 임무의 목적을 위해 자격이 있는 교인들은 공공 직책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 6.29 민간정부와 그 관료들은 믿음과 신앙생활에 관한 문제나 업무에 대해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민간정부는 사람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고 간섭함 없이 종교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 6.30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처리되는 계약공동체는 하나님이 창조의 행위 안에서 인간에게 의도하신 기본적인 존귀함을 거부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인종적인 억압상태의 모든 환경조건들을 억누르고 저항하고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 6.31 계약공동체는 가난한 자, 억압당한 자, 병자, 소망 없는 자들을 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주장해야 한다. 교회는 공적으로나 교인 개인적으로나 폭력의 희생자나 사회와 법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한다. 이러한 옹호는 여하의 불법과 불의에 항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을 악으로 이기고자 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행위를 후원해야 함을 포함한다.

7.00 하나님은 모든 삶과 역사를 완성하신다.

사망과 부활(Death and Resurrection)

- 7.01 사망은 영적이며 육체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선언할 의무와 특권을 가진다. 하나님은 영적, 육신적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구속하시려 행하신다.
- 7.02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죽음 후에 육체의 부활로 그들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실한 기대의 기쁨으로 살아간다.
- 7.03 중생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안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한다.
- 7.04 신자는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생명으로 옮겨짐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심판의 두려움 없이 완전한 구원을 신실하게 기대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심판과 완성(Judgment and Consummation)

- 7.05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한다. 사람들은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 중에는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의 단절, 자기 자신의 행위의 결과와 죄책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생의 목적에 대한 신뢰의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이 포함된다.
- 7.06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상 전쟁이나 내란, 노예제도, 억압, 천연자원의 파괴, 정치적, 경제적 착취 등과 같은 악을 마음대로 행한 나라나 사람들의 자유함에서 경험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없는 고통과 죽음을 야기시키는 행위들을 미워하신다.
- 7.07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회개, 믿음과 사랑 없이 살아가려는 인간이 시도해온 삶을 초월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상태로 남아있으며 희망없는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며 이는 지옥이다.
- 7.08 역사가 완성되는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세계 모든 왕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며, 그가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